

민간·군 공항 통합 이전 최초 사례 ‘대구경북통합신공항’ 건설 본격 추진

- 8월 25일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 -
- 건설 추진단 출범, 사업적정성 검토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8월 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건설 예정인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*(이하 ‘민항 사타’) 결과를 발표한다.

* 대구공항 민항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(아주대·유신, '20.10~'23.9)

○ 사전타당성 검토는 「예비타당성조사(이하 ‘예타’) 운용지침」에 따라 공항 건설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항공 수요에 따른 시설 규모, 배치 등 개략적인 공항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로,

○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‘특별법’) 제정(4.25) 이후 통합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, 국토부는 대구·경북 및 공항 전문가* 등과 함께 계획을 마련했다.

* 관계기관 실무협의체('21.9~) 및 전문가 자문단(국토부·지자체 추천 17명, '22.9~)

□ 민간 공항은 부지면적 약 92만 m^2 로 전체 공항 면적의 약 5%이며, 항공 수요('60년)는 여객 1,226만명(국제선 906만) 및 화물 21.8만톤, 시설은 여객터미널 10.2만 m^2 , 화물터미널 1만 m^2 , 계류장 29.6만 m^2 , 활주로 3,500m, 확장을 위한 여유부지 22.6만 m^2 등 규모로 검토하였으며, 총사업비는 약 2.6조원으로 조사되었다.

□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은 “민·군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, 2030년 군공항 이전계획에 따라 민항이 차질 없이 개항되도록 국방부, 대구시,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”이라며,

○ “향후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출범(특별법 제12조), 예타 면제 신청, 기본 계획 수립 등 후속 사업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공항공정서관 공항공정서관	책임자	과 장	신윤근 (044-201-4328)
		담당자	사무관	최대경 (044-201-4264)
			주무관	장재원 (044-201-4265)



① 사타 주요결과

구분	現 대구공항		=>	통합신공항	
	규모	비고		규모	비고
· 부지면적	753만㎡ (228만평)	100%	1,782만㎡ (540만평)	100%	
- 민항	17만㎡ (5만평)	2.3%	92만㎡ (28만평)	5.2%	
· 수요	여객 467만명 ('19년)	국제선 260만	1,226만명 ('60년)	국제선 906만	
	화물 7톤 ('19년)		21.8만톤 ('60년)	-	
· 터미널	여객 2.7만㎡		10.2만㎡	(3.8배)	
	화물 844㎡		1.0만㎡	(11.9배)	
· 계류장	5.1만㎡		29.6만㎡		
· 활주로	L = 2,755m (1本)		L = 3,500m (1本)		
	L = 2,743m (1本)		L = 2,744m (1本)		

※ 사타 결과는 최종 확정안이 아니며, 이후 예비타당성조사(또는 사업적정성 검토),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할 예정

② 총사업비 내역

구분	계	부지조성	에어사이드 (활주로, 계류장 등)	랜드사이드 (터미널, 주차장 등)	접근도로(2건)
총사업비(억원)	25,768	5,187	2,617	14,025	3,939
비율	100%	20%	10%	55%	15%

③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배치안





